

■ 주요 뉴스: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추가 금리인하는 물가 안정에 부정적일 우려

- 스위스, 대미 관세 15% 인하와 2,000억달러 투자에 합의
- 美 무역대표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품 관세는 취소할 필요
- 중국 10월 생산 및 투자 둔화. 연간 성장목표 5% 내외 달성여부 불투명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와 지정학적 불안 등이 영향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불구 약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불안 영향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영향 지속
독일은 영국 국채금리 급등 등이 영향

※ 뉴욕 1M NDF 증가 1446.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8.6원, 0.58% 하락). 한국 CDS 상승

		11/14일	11/13일	전일대비			11/14일	11/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34.1	6,737.5	-0.05%	국채 금리 10y	미국	4.15%	4.12%	+3bp
	유럽	574.81	580.67	-1.01%		독일	2.72%	2.69%	+3bp
	중국	3,990.5	4,029.5	-0.97%		영국	4.57%	4.44%	+13bp
	일본	50,377	51,282	-1.77%	CDS 5y	한국	23bp	22bp	+1bp
	한국	4,011.6	4,170.6	-3.81%		중국	44bp	44bp	-0bp
	달러지수	99.27	99.17	+0.12%	위험 지표	EMBI+	-	279	-
환율	유로화	1.1621	1.1633	-0.10%		VIX	19.83	20.00	-0.85%
	엔화	154.55	154.56	-0.01%		WTI유	60.09	58.69	+2.39%
	위안화	7.0993	7.9061	-0.05%	원자재	구리	506.3	510.2	-0.76%
	원화	1,453.1	1,466.0	+0.89%		금	4,084.1	4,171.5	-2.1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추가 금리인하는 물가 안정에 부정적일 우려

- 캔자스시티 연은의 슈미드 총재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관세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면서, 금리를 더욱 인하할 경우 2%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 또한 금리 인하가 고용시장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불투명하다면서 최근의 고용둔화는 구조적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
- 최근 주요 연은 총재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부각되면서, FedWatch는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53%로 지난주 66.9%보다 낮아졌다고 설명
- Truist Advisory Services는 AI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에 대한 거품 우려와 함께 금리인하 기대감도 약화되어 불안이 심화되었다고 지적. SimCorp는 투자자들이 정부 데이터 발표 재개 등을 지켜보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스위스, 대미 관세 15% 인하와 2,000억달러 투자에 합의

- 미국과 스위스가 대미 수출관세를 기존 39%에서 15%로 인하하고 스위스 기업이 '28년까지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무역 협정안을 발표. 취리히 공과대학은 관세율 인하로 '26년 스위스 경제성장률이 0.1%p 상향될 것으로 전망

■ 美 무역대표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관세는 취소할 필요

-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커피, 열대과일 등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 한편, 그리어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 큰 폭의 물가 상승은 없었다면서 아시아 등의 저가 제품이 미국 제조업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부연

■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원유 수출 중단

-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 항구도시 노보로시스크의 원유 수출이 중단. 일일 수출규모는 220만배럴로, 전세계 공급량의 2% 수준. 한편, 러시아도 우크라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여 에너지 및 의료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

■ 중국 10월 생산 및 투자 둔화. 연간 성장목표 5% 내외 달성여부 불투명

- 10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4.9% 늘었으나 전월(6.5%) 및 예상치(5.5%) 하회. 투자 역시 1.7%(ytd) 감소하면서 전월(-0.5%) 및 예상치(-0.8%) 대비 크게 부진.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에 주택 거래량도 -20.8%로 전월(-12.5%) 대비 위축
- Goldman Sachs는 최근 과잉생산 억제에 따른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성장이 5.2%로 견조하여 연간 성장이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반면 JPM은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 HSBC는 경기 하방압력 심화로 추가 부양책 없이는 내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

■ 미국, 대만에 3.3억달러 무기 판매 승인

-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대만에 전투기와 항공기 부품 등 3억3,000만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 미국 국방부는 대만의 안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 한편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이라고 언급

■ 유로존 3분기 GDP 전기비 0.2% 증가, 속보치와 동일

- 유로존 3분기 GDP 잠정치가 0.2% 증가하면서 2분기(0.1%)에 비해 개선.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0.5% 증가한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0.0%로 부진

■ 영국, 소득세 인상안 철회에 국채금리 급등

- 영국 리브스 재무장관이 그동안 언급해 오던 소득세 인상안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확대.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고 설명. 14일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7%로 전일비 13bp 급등

■ S&P 글로벌, 남아공 신용등급 20년만에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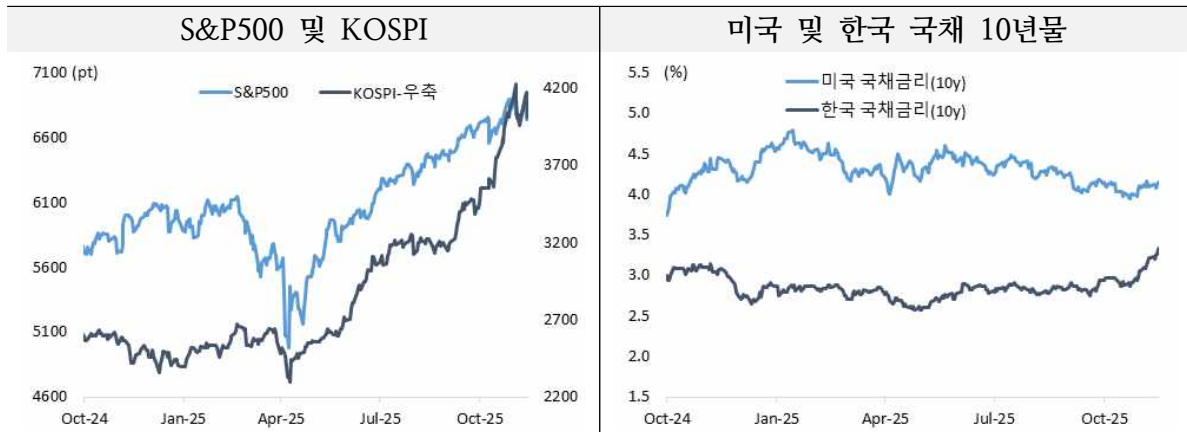
- S&P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0로 20년만에 상향. 국영 전력기업 Eskom의 실적개선과 전력공급 안정화가 신용리스크를 낮추었다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11/17~2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산업생산(18일). 9월 고용보고서, 10월 FOMC 의사록(20일)
- 유로존 10월 CPI, PPI(19일), 일본 3분기 GDP 잠정치(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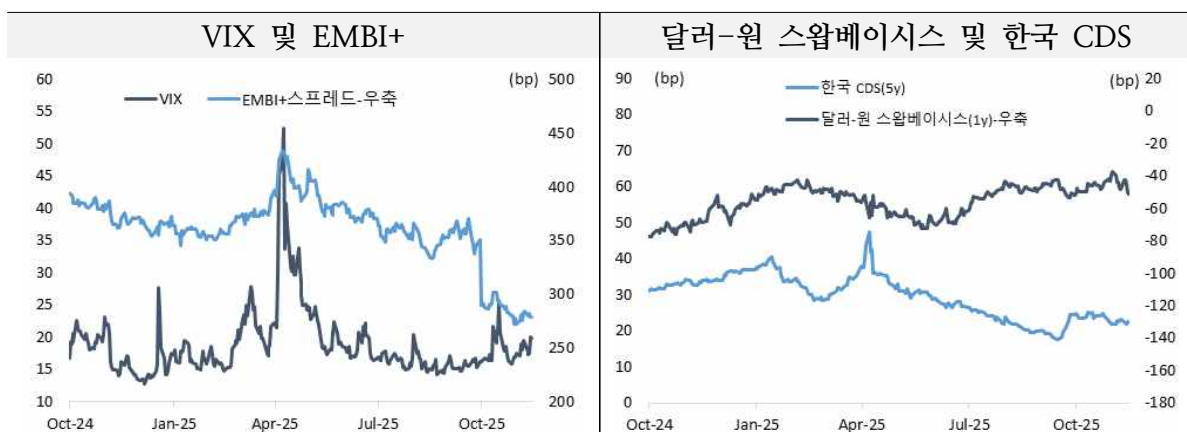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